

Strategy Idea

中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와 미중 정상회담



글로벌 투자전략 - 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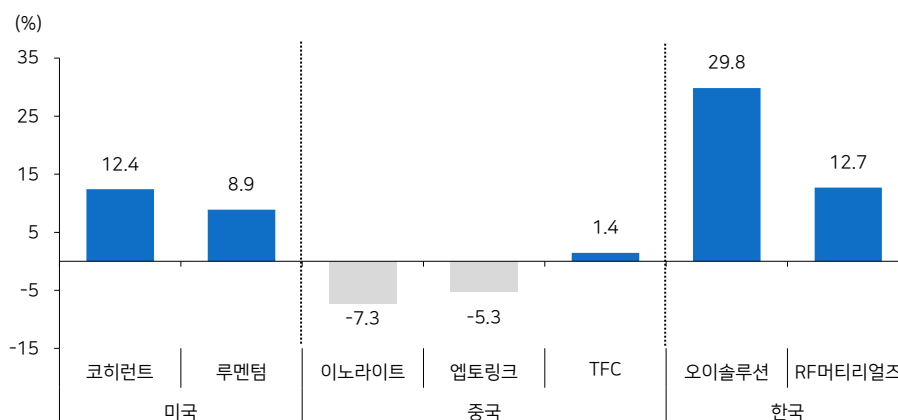
- ✓ 중국산 광트랜시버의 수입 금지 가능성 제기, 빠르면 올해 안에 통과 및 시행
- ✓ 9월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규제 논의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가능성 제한적
- ✓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디커플링 심화 → 규제 현실화된다면 미국 및 한국 광통신 기업에 호재

중국산 광트랜시버의 미국 수입 금지 가능성 제기

8월 4일 로이터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데이터센터의 중국산 신규 부품(광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규제를 주도한 곳은 연방통신위원회(FCC)다. 광섬유 케이블로 데이터를 광속 전송하는 핵심 부품인 광트랜시버 신모델의 수입을 막는 방식으로, 연내 공표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면적인 명분은 데이터 절취, 악성코드 설비, 서비스 중단 등 사이버 보안 리스크로부터 AI 인프라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8월 4일 코히런트(+12.4%), 루멘텀(+8.9%) 등 미국 광통신 부품주는 일제히 급등했다. 반면 중국의 광트랜시버 3대장 기업인 이노라이트(-7.3%), 엡토링크(-5.3%)는 장 초반 하한가(-20%)까지 갔다가 장중 낙폭을 축소했다. 한편 중국 공급망 대체 반사수혜로 한국 기업들이 급등했다(그림 1).

그림1 미국의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조치에 미국·중국·한국 대표기업 주가 엇갈린 흐름



주: 미국 종목은 8/4일 주가 변동폭 기준, 중국 및 한국 종목은 8/5일 주가 변동폭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왜 지금인가?

사실 이번 조치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정책 트랙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방부 및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를 통해 주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 왔다. 한편, FCC는 미국의 통신 인프라와 소비자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를 공식 운용하기 시작했다<표 1>.

주목할 점은, 최근 개별 기업 제재를 넘어 첨단 하드웨어 품목 전체로 규제 범위를 전면 확장하는 추세라는 것이다<표 2>. 또한 7월 말에 통과된 휴머노이드·4족 로봇, 커넥티드 인버터의 수입 금지 조치는 9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예고된 이후에 발표되었다. 올해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안정에 공감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주기적으로 추가되는 것을 보면, 미중간의 기술 규제는 정상회담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트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1 미국의 규제: FCC Covered List vs. 상무부 Entity List 비교

구분	FCC Covered List	미 상무부 Entity List
주관 기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 산업안보국(BIS)
주요 초점	미국 시장 내 특정 통신장비·단말기의 판매/수입/인증 금지	미국 기술/부품의 해외기업 수출 및 공급 통제
적용 범위	미국 네트워크 인프라 및 소비자 시장 보호	글로벌 반도체·소프트웨어 공급망 차단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FCC의 대중국 Covered List 확장 과정 정리

시기	대상	비고
2025년 12월	드론	Covered List 편입
2026년 3월	네트워크 라우터	Covered List 편입
2026년 7월 말	휴머노이드·4족 로봇, 커넥티드 인버터	중국 상무부 강력 반발, 보복 예고
2026년 8월(초안)	AI 데이터센터용 광트랜시버(신모델)	미국 연내 확정 목표

자료: FCC, 해외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광통신 전문 리서치 기관인 ICC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800G 광모듈 시장에서 중국 기업은 10개 중 7개를 차지하고, 이 중 상위 3개 기업은 전체 시장의 60% 점유율로 비중이 크다. 특히 이노라이트 (Innolight, 中际旭创)의 점유율은 37%로 압도적 1위이고, 엠포링크(Eoptolink, 新易盛)도 21%로 3위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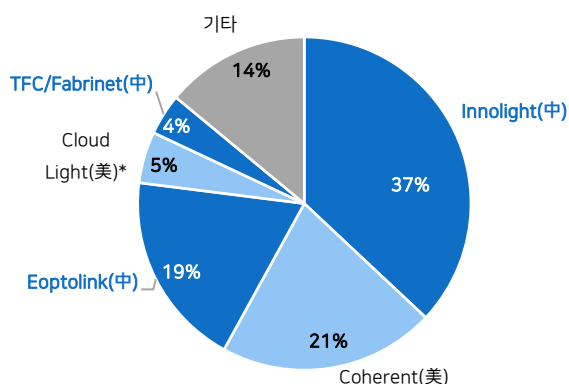
따라서 보도대로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기업 실적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기업별로는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이노라이트(91%)와 엠포링크(96%)에 대한 충격이 클 전망이다. 특히 이노라이트 부담이 크다. 상위 5대 고객 매출 비중이 75%를 상회하고, 단일 최대 고객이 북미 기업으로 그 비중이 25%를 차지해 고객 집중 리스크까지 겹친다(그림 3).

또한 위의 3개 대장주들은 중국 본토 심천 차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합산 비중이 차스닥 지수의 20%를 차지한다. 규제 현실화로 주가가 급락한다면 차스닥 지수에도 부담 요인이다. 다만 CSI300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은 약 3.3%로 낮아 전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8/4일 시총 기준).

관련하여 현재 중국 기업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미국 FCC에서 해당 규제를 발표하지 않았기에, 회사는 루머에 대해 평가하지 않으며 앞으로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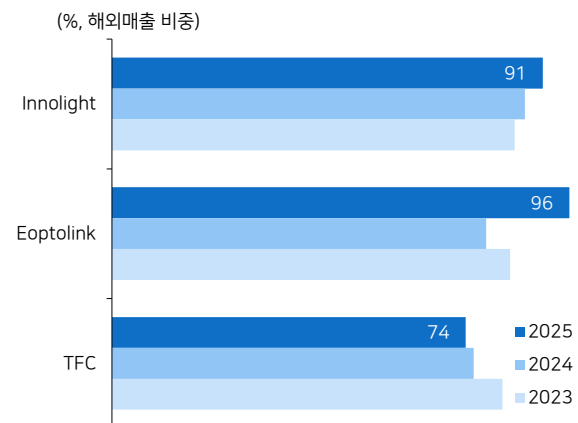
한편 중국 금융기관을 포함해 현지에서는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분석하고 있다. 주요 근거는 미국기업들이 당장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연시킬 수 있어 부담이라는 논리다. 로이터 보도에서도 미국 FCC가 규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혀,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2 전세계 800G 광모듈 시장 점유율: 중국 Top3 60%



주: 2025년 기준, Cloud Light는 중국계 스타트업이었지만, 23년 미국 회사인 루멘텀(Lumentum)에 의해 100% 자회사로 인수
자료: IC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중국 광모듈 3대장의 해외매출 비중 비교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9월 미중 정상회담, 수입 금지가 해소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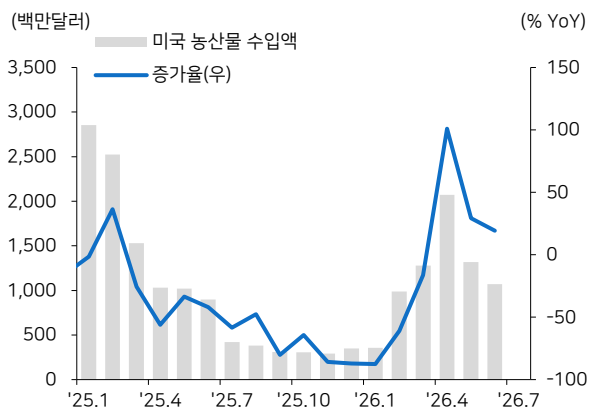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24일경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임을 공식 언급했다. 아직 세부 논의 주제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5월 이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AI, 광트랜시버 등 미중간 기술 갈등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관련 내용에 대해 양국이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카드로는 1) 희토류 대미 수출 추가 제한, 2) 테슬라·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추가 제한 등이 있다. 이번 광모듈 규제 초안 보도 직후에도 중국 대사관은 ‘자국 이익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어떤 조치에도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갈등이 격화 또는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지난 5월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감안해 보면 9월의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미국에 1) 10년 안에 200대의 보잉 여객기 구매, 2)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확대, 3)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속들이 뚜렷하게 이행된 것은 없다.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이 9월 정상회담에서 바로 해소되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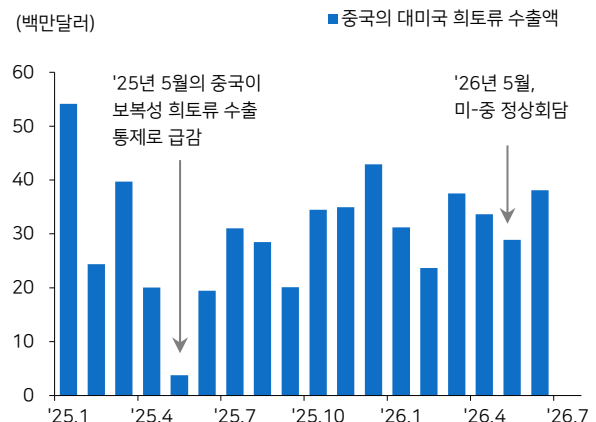
이러한 구도는 투자자에게 ‘정상회담 = 리스크 해소’라는 단순한 프레임 대신,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구조적 디커플링 트렌드에 베팅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그림4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해관총서, CE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의 미국향 희토류 수출액 추이



주: 희토류 제품과 금속 모두 포함

자료: 해관총서, CE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및 한국의 반사수혜 기업

미국의 상무부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나 FCC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등 대중국 기술 제재의 명목은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안이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중국 기술 기업의 추격을 지연시켜 자국 기업의 시장 독점력과 첨단 기술 주도권을 사수하려는 것에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통제를 넘어 ‘미국 중심의 독점 시장’과 ‘중국 및 제3국 시장’이라는 세계 기술 공급망의 이분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당연히 중국 기업에게는 부정적이지만, 중국을 대체할 미국 및 우방국의 밸류체인 기업들에게는 재평가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로봇·전력망 생태계에서 핵심 부품 및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의 하드웨어 밸류체인 기업에게는 기회이다.

이번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인 코히런트(COHR), 루멘텀(LITE)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 단 <그림 2>에서 보았듯이, 미국 기업 점유율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공급 병목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관련 기업에게 신규 벤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에는 즉각적인 대체가 아니라 공급 부족의 2차 수혜에 가깝다.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한국 기업으로는 RF 머티리얼즈(327260)와 오이솔루션(138080)이다. RF 머티리얼즈는 루멘텀의 공급 벤더로 점유율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 공급자로서 중국 기업들의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종목에 관한 보고서¹는 당사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인 정지수 위원의 최근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투자자는 앞으로 1) FCC 규제안의 공식 발표 여부, 2) 9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3)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여부를 핵심 체크포인트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 <RF 머티리얼즈: 4Q25 Review: 숫자로 증명> (2026. 1. 26), 정지수, <https://tinyurl.com/2tjdxs52>

2 <오이솔루션: ‘광학 플러그 연결 패키지’ 특허 코멘트> (2026. 3. 25), 정지수, <https://tinyurl.com/ywixmnjz>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